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1996년도

교회조직 일부 통합 변경

찬양위원회는 예배위원회로, 1, 2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새가족위원회는 교구위원회로, 기도원은 행정위원회로 각각 통합

교회는 현 교회조직이 방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각 부서 중복되는 업무 내용을 가진 부서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교회 조직을 축소하고 보다 원활하게 조직이 움직이게 하고 따라서 조직 상호간의 협조와 보완체계를 쉽게 만들었다.

새로 개편된 조직의 특징은 교회 5대 목표(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추진기관으로 보고 나머지를 이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보아 교회 5대 목표에 대한 지향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5대 목표를 위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중추기관이 되고 나머지 부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1, 제2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새가족위원회는 교구위원회로, 기도원은 행정위원회로 통합되고, 감사위원회는 당회장 직할기관의 감사실로, 건축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 현재는 제2교육관 건설부로 바뀌어 그동안 당회 산하 15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한시적인 기구로 제2교육관 건설부와 길신평위(길림성기독교신학원 특별위원회)를 두고, 교육훈련원, 도서관 학회, 상담실을 교육훈련원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31개 조직에서 24개로 7개 조직을 통합하여 조직의 부담을 덜게 되고 원활한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 조직과 새 조직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조직	개편조직	책임자	주요부서(부장)	
1 예배위원회	1 예배위원회	위원장	예배 / 성례 / 안내 / 헌금	교회 5대 목표 추진 기관
2 찬양위원회			영어예배 / 각 찬양대 / 각 연주단	
3 1교육위원회	2 교육위원회	위원장	영/유/초1-6/중1-3/고등/대학/청년1-2	
4 2교육위원회			장년1-3/소/새/사/에/탁/영어/예신	
5 전도위원회	3 전도위원회	위원장	전도/직능/농어촌/전도대	
6 선교위원회	4 선교위원회	위원장	아주/미주/유럽/아불/북한	
7 봉사위원회	5 봉사위원회	위원장	지역사회/동산/상조/구제/경조/차량	
8 인사위원회	6 인사위원회	당회장		교회 5대 목표 지원 기관
9 기획위원회	7 기획위원회	위원장		
10 교구위원회	8 교구위원회	위원장	교구	
11 새가족위원회			새가족부	
12 행정위원회	9 행정위원회	위원장		
13 기도원			기도원	
14 재정위원회	10 재정위원회	위원장		당회장 직할 기관
15 교육훈련원	11 교육훈련원	당회장	성경연구원 / 교회성장연구원	
16 도서관 학회			선교연구원 / 도서 장학회	
17 충현상담실			상담실	
18 교육연구소	12 교육연구소	당회장		
19 감사위원회	13 감사실	실장		
20 건축위원회	14 2교육관건설부	본부장		한시
21 길신평위	15 길신평위	당회장		
22 유지재단	16 유지재단	이사장		
23 복지재단	17 복지재단	이사장	충현복지관 / 유아원 / 조기교실	
24 충현동산	18 충현동산	이사장		
25 안수집사회	19 안수집사회	당회서기		
26 권사회	20 권사회	기획위장		기타
27 기획실	21 기획실	실장	기획 / 홍보 / 전산 / 인쇄	
28 충현출판사			출판	
29 사무국	22 사무국	국장	총무 / 정리 / 관리 / 음영 / 조달	
30 교육국	23 교육국	국장	교행 / 교훈 / 교연 / 도서 장학	
31 비서실	24 비서실	실장		

제9대 안수집사 40명 장립 및 제37대 권사 66명 취임 예배

10월 18일(수), 오후 7시에

교회는 오는 10월 18일(수), 수요일 11부 예배시(오후 7시)에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모든 순서를 확정했다.

이번에 장립을 받게 될 안수집사는 40명, 취임하게 될 권사는 66명으로 이들은 지난 3월 19일에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과 당회에서 실시한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날 예배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 중경노회장 예종택 목사의 설교, 당회서기 우기전 장로의 기도, 노회장 권희정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 노회서기 김중학 목사가 교우에게 권면, 중경노회장 원사연 목사가 축사, 김창인 원로 목사가 축도하게 된다.

이번 장립 될 안수집사와 취임할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안수집사
고제승 김달현 김영달 김영록 김종선 김차철 김창국 김형철 박병택 박승길

박용기 박종규 박창식 배춘식 손기현
신상수 안희정 양승길 엄균영 오동환
유상태 유성남 이달옥 이부성 이승계
이인광 장충균 전은배 정래부 정인선
정재모 정철길 정래명 조종환 조종진
진학래 차기풍 함철주 허명호 허 오

· 권사
강동화 강석란 강영자 강정일 구인숙
김경애 김경자 김명주 김미자 김봉덕
김숙자 김순자 김연옥 김영아 김인단
김정희 김현옥 김효정 마정옥 문경희
민병란 박부미 박영여 박점순 박춘옥
박태순 방소애 변옥희 설복연 손숙자
손순자 안숙자 안숙자 안정선 안정자
안태숙 양명자 여신자 연화숙 왕진숙
유성자 유재춘 윤정희 은필레 이명자
이소현 이정순 이학자 이희자 임용재
장명숙 장옥순 조분자 조영자 조옥환
조자순 조향순 최 규 최길자 최선옥
최영득 최정심 최태옥 최하자 최현숙
한숙원

'95 충현 찬양의 밤

11월 17일(금), 전 찬양대 및 연주대 참여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는 전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한 각 찬양대는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되고 발전되는 기회를 갖고자 '95 충현 찬양의 밤을 11월 17일(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95 충현 찬양의 밤은 7개 전 찬양대와 핸드벨과이어, 크로마하프, 만돌린 연주대, 오케스트라 및 남성중창단 등 교회 내 찬양관계 단체가 전체 참여하는 명실공히 충현찬양의 밤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각 찬양대는 이미 찬양곡 선정을 마치고 이미 지난 여름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음악회 형식을 빌어 전문 아나운서가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규모 있고 질서있는 모습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마지막 곡은 전 찬양대원이 함께 하여 연합으로 찬양의 '메시야'를 찬양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찬양대원은 약 1,100명 규모. 온 성도들의 관심과 성원과 기도를 부탁하며 진정한 '95 충현찬양의 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현강단

시편 강해 8

창조주를 찬양하자

(시 8:1-9)

1. 본문의 배경과 내용 요약

시편 8편은 목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감이 있는 목동 출신의 다윗이 낮에 빛나는 태양과 밤중에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마치 커다란 전등불처럼 지구를 향해서 환하게 비쳐 주는 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드린 유명한 시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오니’, 그는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나라 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고, 전도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총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영광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를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크게 뜨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말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야웨를 우리말로 음역해서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유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자연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지요 하는 말은 높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은하계란 것이 있는데 은하수의 종류는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1억개 정도입니다. 더욱이 각 은하수마다 별들이 약 100억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별이라는 것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은하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장 작은 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인간들,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그런 인간이지만 인간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소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와의 사들이 아무리 인간을 연구해도 얼마나 신기한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어린아이와 짐승이들까지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아직 말을 배우기 전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입을 자꾸만 놀립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음악 연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 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산에서 졸졸졸 내려가는 물소리, 또 나무 잎사귀를 지나가는 바람소리, 파도치는 베이스 소리, 피코리의 하이 소프라노 소리 이 우주 전체가 아주 장엄한 교향곡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걸작품인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찬양하는데 인간의 입술만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려지지 않아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을 회복해야 합니다.

3. 인간의 영광

4절을 보면 시편 1편을 강해할 때에 설명한 패럴렐리즘(parallelism), 즉 대구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산에서 졸졸졸 내려가는 물소리, 또 나무 잎사귀를 지나가는 바람소리, 파도치는 베이스 소리, 피코리의 하이 소프라노 소리 이 우주 전체가 아주 장엄한 교향곡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이라고도 번역하는 평행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하는 이 구절과,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것이 동의, 같은 뜻을 가진 평행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각’과 ‘권고’는 같은 뜻입니다. 또 ‘사람이 무엇이관대’ 하는 말과 ‘인자가 무엇이관대’ 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은 ‘기억한다’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다. 이 큰 우주, 그야말로 끝없는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 그 중에서도 50억이나 되는 인구가운데 가장 못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억합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 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보살피고 계시는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말 옆에 ‘I’ 자가 있고 아래 관주를 보면 ‘1.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번역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창 1:26).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가장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둘째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감투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로 감투를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것을 벗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절서가 깨지고 무절서가 생긴 것입니다.

셋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발 아래 두셨다”하는 말은 옛날 관습을 생각하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올려놓은 발의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왕들의 보좌에도 반드시 발등상이 있는데 그 발등상 위에는 그가 정복한 나라 이름과 정복한 왕의 이름이 누구누구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만물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했지 착취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인간들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만물을 착취하고 자연을 착취해서 훼손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만물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어가고, 이제는 오염된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죽어 갑니다. 물이 죽고, 산이 죽고, 강이 죽고, 바다가 죽고, 이제 인간도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범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9절은 서론이요 결론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다는 말은 높고 위대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높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짐승이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연만물과 인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과 순간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 크고 높으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고, 전도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우리 부서는 지금 / 초등 1부

초등1부로 오세요

유 묘 중 (초등1부 교사)

충현을 품은 함성도 그치고 온갖 열매들이 조용히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추수를 위하여 바빠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학교를 둘러보면 일꾼들은 많지만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족하고 게으른 자세로 추수를 못하나 반성하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넓은 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사탄은 현란하고 큰소리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 막습니다. 주일에도 T.V가 발목을 잡고, 학원에도 가야 하고 가족과 야외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사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0)

어린이들이 사탄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사탄은 그들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대예배만 참석하는 일이 있는데 몸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고 수준에 합당한 부서에서 예

배를 드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초등1부는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주일에는 교육관 307호실에서 8시 5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손미희 전도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하시며, 2부는 새친구 환영, 생일축하, 즐거운 율동시간이 있으며 각 반별로 주일학교 계단공과를 통한 분반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열달이 지난 지금 아이들의 몸이 자란 것만큼 믿음도 자랐으며 많은 믿음의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초등1부 42명의 교사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6일(주일)에는 초등1부 추계초청전도잔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주변과 본 교회에 출석하는 학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을 통한 전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초등1부는 아이들이 어리므로 부모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부서입니다. 예배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여 주님께 칭찬 받는 초등1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충현교회 드락을 떠나며 새겨 놓습니다

충현교회와 한국밀알선교단

1988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모습으로 주춤하고 있을 무렵이었지요. 그 날 한국밀알선교단은 충현교회 드락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역삼동 사대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넓어서 얼떨떨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밀알선교단의 규모는 아주 적고 미미했습니다. 전임사역 간사도 5명에 불과했고 지부도 2곳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장애인선교단체가 충현교회의 크고 넓은 드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충현교회의 드락에서 8년을 지내고 난 지금, 우리는 충현으로 밀알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연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곳에서 밀알을 크게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서울본부의 직원이 16명에 이르게 된 것을 비롯해 10개 지부에 60여명의 전임 사역자를 갖게 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주밀알선교단도 조직되었고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을 성립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 충현교회에서 제공한 안정된 공간을 그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평의 사무실 외에 충현교회 본당과 넓은 여러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복음화대회 등을 비롯해 큰 행사도 쉽사리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충현의 공간에 넉넉히 자리잡게 된 밀알의 흔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조기교실이며, 장애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복지관이며 그리고 텅빈 공간마다 예외없이 설치된 경사로..... 작은이들을 큰 곳에 보내셔서 작은이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뜻을 더욱 크게 널리 펼쳐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마다 일마다 성원해 주신 충현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당회와 교역자,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혜정 (초등1부)

세상에서 제일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교회가 되고 믿음있는 찬송을 드려서 더 많이 빛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 아파가 더 하나님을 따라가서 찬송하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경도 열심히 배우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가족들은 예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좋으시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교회에서 떠들지 않아야 되겠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니까 그 법에 따라가고 물건을 아껴써서 더욱 하나님께 예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좋고 기쁘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충현실업인전도회 회장 남선우 장로

회원 1,000명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업장의 복음화에 앞장서
10월 19일 대상자 초청 모임



충현실업인전도회는 1990년도에 사업장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회원간의 친교를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원 1,000명을 목적으로 오는 10월 19일(목) 오후 7시 ~ 9시 30분에 교회 만나홀에서 대상자 초청집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다.

▶ 실업인전도회의 현황과 그동안의

활동은?

▷ 사업을 하는 실업인은 늘 시간에 쫓기기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보다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신앙적인 모임과 기도의 모임 등을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적절한 장소가 없어 어려웠는데 지난 2월에 교회의 큰 배려로 교육관 112호실을 실업인전도회실로 사

용하면서 다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회, 회원사 방문, 회원사에 도움이 될만한 특별강좌, 이웃돕기, 월 1회 등산대회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 특기할 것은?

▷ 구인구직 알선 사업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

다. 우리는 교회내에서 구인구직을 알선하여 사업장의 복음화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와 사랑도 가능하기에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이번 10월 19일에 갖게 될 집회에 대해서

▷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번에는 각 교구의 도움을 얻어 각 대상인원을 파악하여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중 자영업하시는거나 기업체의 중간관리 이상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직능전도회가 그 직능에 걸맞는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실업인전도회는 회장이하 모든 임원들이 열심히 창의적이고 유익한 전도회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 해당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찬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형>

토·막·소·식

◆ 유치부는 10월 22일(주일) 1부 예배 후 수료생 기념촬영을 실시한다.

◆ 중등2부는 '시와 찬양의 밤'에 전시할 시화전 작품을 모집한다. 시, 그림, 예쁜 엽서 등 어떠한 형식의 작품도 환영한다고. 이번 '시와 찬양의 밤' 행사의 부제는 '우리가 시인이 되는 밤'

중등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10월 28일(토)

교회학교 중등1·2·3부는 10월 28일(토) 오후 4시에 갈릴리움에서 '시와 찬양의 밤' 행사를 연합으로 갖는다.

이날 행사는 중등 각 부가 1년 동안 교육의 발표의 장도 되고 연합행사의 의미도 살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찬양과 성극, 시화전, 대학부 NMC의 특별출연 등 갈수록 교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고등부는 오늘 분반공부 후 11시에 복지관 가나홀에서 마라나타 정기공연으로 모인다. 또한 11월 5일(주일)에는 잃은양 찾기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인다.

◆ 청년2부는 회칙에 의거 1995년 먼려회 제2차 정기총회를 10월 29일(주일) 오후 1시, 청년2부 집회실(교 414)에서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11월 5일(주일)에는 특강으로, 11월 19일(주일)에는 성경암송대회로 모인다. 범위는 시편 42, 46, 51, 80, 96편으로 청년2부 회원 전원의 참석을 바

라고 있다.

◆ 장년1부는 10월 29일(주일)에 달란트 발표대회를 열기로 하고 각 대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① 전도설교, ② 찬양, ③ 시낭송, ④ 악기연주, ⑤ 기타 개인장기 중에서 펼친다. 원고는 22일까지 제출하며 소요시간은 각 5분 이내로 부탁하고 있다.

◆ 장년2부는 성경암송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예선은 19월 29일(주일) 12시 30분이며, 본선은 11월 5일(주일) 12시 30분에 치른다. 범위는 디모데 후서 2장이다. 장소는 교육관 314호이며 대상은 장년2부 전원.

◆ 소망부는 10월중에 있게될 성경암송대회를 준비중이다. 본문은 요일 4:11-21이다.

대학, 청년1부 면려회 총회

교회학교 대학부와 청년1부는 1996년도 면려회 총회를 갖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대학부 면려회 회장에는 손호준 형제, 부회장에는 이희진 자매가 선출됐다.

청년1부 회장에는 김덕은 형제, 부회장에는 조인성 형제와 이해경 자매가 각각 선출됐다.

◆ 가브리엘찬양대는 10월 26일(목)에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시편 1편부터 제2장까지 암송하면 된다고 한다.

김필수 강도사 목사안수

김필수 강도사(초등5부 지도)가 지난 10월 10일 성남제일교회에서 모인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찬양대 지원을 위한 안내표

예배및명칭			구분	예배시간	연습시간	
					주일	평일
주	1부	가브리엘		07:00~08: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2부	임마누엘		09:00~10:00	예배전후 1시간	(토) 16:30~18:30
	3부	할렐루야		11:00~12:00	예배전후 1시간	(토) 17:00~19:00
일	4부	아 멘		13:00~14: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영어	시 온		09:00~10:00	시작전 1시간	(토) 17:00~19:00
수	1부	호산나(여성)		11:00~12:00	(주)16:00~17:00	시작전 1시간
요	2부	실로암		19:00~20:00		수요예배전후 1시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29일 오전 8:30부터 ~ 오후 3:30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

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누구나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10/16(월) 성신클럽 성령봉사상 시상식 설교
10/17(화) 경찰의 날 기념예배 설교
10/18(수) 안수집사 장립·권사 취임 예배 설교
10/19(목) 레위남성성가단 모국방문연주회 기도
· 신성종 목사: 10/16(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10/18(수) 안수집사 장립·권사 취임 예배 사회
10/19(목) 중헌실업인전도회 초청집회 설교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6.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차질서를 지킵시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차량관리부 부원들의 노력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중헌교회 주차장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켜 주차질서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1. 주일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모든 면에서 제일 좋습니다.
2. 주일 1부 예배시는 본당 앞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3. 또한 1부 이외에도 본당앞은 장애인 및 새가족에 한해서 주차를 허락합니다.

4. 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할 경우 반드시 사이드 기어를 풀고, 기어는 중립에, 핸들은 똑바로 해주시고, 예배후에 속히 나오셔서 차를 빼주세요.

5. 주일 저녁 찬양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6. 장로, 안수집사들은 장안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7. II, III부 예배시는 교회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인주로(영동전화국 ~ 자미온)에 노상주차 할 수 있습니다.

8. 대형버스로 오시는 성도는 논현로의 광혜의원 앞에서 하차하시고 버스는 그곳에 주차하세요.

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가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뇌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연구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측정 및 건강진단 /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대해서 두루 살펴서, 헌혈여부를 판단하며 혈액도 측정한다.

- B형·C형 간염 및 AIDS·매독 항체검사 /

헌혈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가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 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LT, 총단백, 알부민, A/G 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지질대사의 이상유무를 진단해 준다